

# ‘안전 해군’ 조성 중요성 확인하고 업무 역량 향상

해군본부, 안전학교 개최  
리더십 교육 의식 함양 정신 일치화  
위험성 평가 전문화 과정 이수하기도

‘안전 해군’ 조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됐다. 해군은 4~5일 이틀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힐에서 김기재(군무이사관) 해군안전단장 주관으로 ‘제2회 해군 안전학교’를 개최했다.

안전학교는 해군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안전 리더십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의식 정신을 일치화하고자 열렸다. 학교에는 해군안전단 관계자와 전대급 이상 부대 안전관리 담당관 등 해군 안전관계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학교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전문화 과정’을 교육받았다. 이수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인가 수료증을 수여했다.

날짜별로 1일 차에는 △안전 리더십 △안전문화 확산 방안 △미군·영국군 위험성 평가 소개 등 안전업무를 이해하고 직무 역



5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힐에서 개최된 ‘제2회 해군 안전학교’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군 제공

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2일 차에는 김 단장과 교육 참석자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김 단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끝으로 우송대 소방

안전학부장 이동경 교수의 화재 안전 특별 강의를 듣는 것으로 교육은 종료됐다.

김 단장은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필수요건이자 부대와 장병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

록 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안전학교를 통해 안전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 해군’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 “혁신의 시대 ‘승리하는 해군’ 선봉 되도록 앞장”

해군교육사령관 이·취임식  
30대 해군교육사령관에 김성학 소장  
“맞춤형 정예 장병 양성 위해 노력” 당부

제30대 해군교육사령관에 김성학 소장이 취임했다. 해군교육사령부(교육사)는 5일 부대 연병장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9·30대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취임식에는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초청 내빈, 재전 부대 주요 지휘관·참모, 교육사령부 장병·군무원들이 참석해 이임하는 이성열 중장을 환송하고 김 신임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 총장은 훈시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사가 치르는 전쟁이자 전투다.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한 전쟁과 전투에

서 교육사령부의 전우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육 내용과 과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방법으로 교육해 오늘은 물론 내일의 전투·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신임 사령관은 ‘싸우면 이기는 정예 전사 육성, 미래전에 대비한 교육혁신, 활기차고 행복한 교육사’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이 충만하고 실무 부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예 장병을 양성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필승해군 4.0’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의지를 결집, 힘차게 항진해 나가자.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승리하는 해군이 되는데 우리 교육사가 선봉이 되도록 사령관이



양용모(왼쪽) 해군참모총장이 김성학 신임 교육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준희 중사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해 문무대왕 함장, 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군항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이임한 이 전 사령관은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오는 2024년 초 전역할

예정이다.

이 전 사령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사령관으로 근무하며 강한 전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를 재천명하면서 교육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해령 기자

## “후보생·야전 부사관 체계적인 교육·지원 필요”

육군부사교, 전투형 부사관 육성 세미나

육군부사관학교(부사교)가 5일 ‘부사관학군단 발전 및 전투형 부사관 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내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국방부,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육군부사관학군단(RNTC) 설치 대학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급간부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사관의 처우 개선과 교육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부사관학군단 발전 세미

나’에서는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군 장려금 지원(900만 원), 후보생 교육기간 군 근속 연수 포함,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 특기 확대, 선발방법 개선 등을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인 부사관 정책 발전을 위한 ‘전투형 부사관 육성 세미나’에서도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육군 부사관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통합적 연구를 해 온 김재식 한국 열린사이버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과 부사관 3년 의무복무제 도입 및 부사관 진급 평가 개선 등 부사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정숙(소장) 학교장은 “창끝 전투력의



5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부사관학군단 발전 및 전투형 부사관 육성 세미나에서 정정숙(소장·앞줄 가운데) 학교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핵심을 담당할 부사관 후보생과 야전 부사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사관 후보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